월요광장

감히 알려고 하는 용기에 대하여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어제까지 옳다고 믿던 일이 자고 깨니 갑자기 잘못된 일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른 체 하는 것이 약일까, 아는 것이 힘이 될까. 요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탄식을 자주 듣는다. 삶이 뿌리를 둔 토대가 통으로 흔들리는 불안과 혼란의 표현일 것이다. 지금껏 살아온 세상이, 일상의 노동과 관계가, 가치 실현의 행위들이 부정당하며, 모멸당한다는 분노의 탄식이기도 하다.

특별히 우리 일상이 뒤틀리거나,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의 그림자는 일상 속으로 깊게 침습해오며 과연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누가 누구와 사돈을 맺었고, 누가 사는 동네가 어디고 하는 등의 시답지 않은 관음적 뉴스와 5년을 백수로 은둔하던 23살 청년의 잔인한 또래 살인, 한 노동자가 '조폭'으로 내몰리다 죽음을 택한 소식이 무심하게도 동시에 들려오는 나날들이다. 세상은 다시 천동설의 시계를 벽에 걸려고 하는 것일까.

16세기에 지동설로 대혼란을 일으킨 사람은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1473-1543)다. 그는 당시의 절대 진리인 지구 중심설 대신 태양 중심설, 즉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했다. 인간들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많은 행성 중에 하나라는 주장은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불경한 것이었다. 결국 이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갈릴레이가 다시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썼다가 1633년에 종교 재판을 받았다. 다시는 지동설을 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난 갈릴레이는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일화가 있다.

당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하늘이 무너진다는 의미였다. '자신이 두 발로 분명히 서 있는' 지구가 움직이다니! 하늘을 보면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이 금방 보이지 않는가!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어야 한다. 이런 확증의 태도는 소위 겉보기 운동의 직관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따라서 자신을 판단의 중심에 둔다. 지동설은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에 큰 의문을 품게 했고, 서양의 인간중심주의가 무너지는 발단이 되었다. 괴테의 말처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세상일을 보는 방식도 같다. 직관성의 태도로 자신을 중심에 두면 세상 구별이 참 쉽다. 하지만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려는 모든 시도는 한낱 무지에서 나온 만용이자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신의 정신적인 중세의 천동설일 뿐이다. 그 누구도 혼자 우주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

세상일에 대한 무관심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원래 가짜들의 판속이고 진실은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쓸모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불안과 혼란, 분노는 개인감정이 아니고, 시대적 징후이다. 알고 싶지 않다고, 결코 모른 척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모두가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방향을 알지 못함에서 엄습하는 바로 그 불안이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돈다는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니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는 로마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에서 온 표현이다. 여기에 '과감히'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의지 때문이다. 두 눈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지구라는 것을 아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부르노 신부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은 용기를 요청받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변방에 사는 이방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자 이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다. 자신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여긴 그리스인에게 낯선 이방인의 언어는 그저 무식한 '야만(바바)'의 것으로만 들렸다. 먼저 상대방을 야만인으로 규정하면 대화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이 '나의 언어'가 곧 유일한 진리의 언어라고 믿는 미성숙한 독단의 세계에서는 지구 대신 아직도 태양이 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디, 과감하게 알고자 하자! 사페레 아우데!

수필의 향기

그 길목 능소화

김 향 남
수필가

틈나는 대로 밭에 간다.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주말농장이다. 밭에는 지금 고구마가 뿌리를 내렸고 들깻잎 상추 케일 치커리 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고추와 가지도 쑥쑥 커 가고 엊그제 뿌린 열무 씨도 싹이 돋기 시작했다. 풀들은 더 기운차게 자라고 있다.

오늘도 사방이 고요하다.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만 하나도 시끄럽지 않다. 새들은 점점 더 크고 야단스럽게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듯하다. 나는 순한 짐승처럼 엎드려 소리를 듣고 햇볕을 느끼며 푸름 속에 잠긴다. 오뉴월의 들판에는 바람결도 싱그럽다.

상추는 그새 어른 손바닥만큼이나 잎이 퍼졌고 열무는 솎아내야 할 정도로 수북하게 올라왔다. 이파리를 따내고 새순을 솎아내다 새삼 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에 생각이 미친다. 푸성귀 몇 가지만 있어도 반찬 걱정이 없을뿐더러 저절로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상추가 잘 컸다고 아낄 일도 아니고 두고 볼 일도 아니다. 그랬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된다. 따내고 나누고 바로 바로 맛있게 먹는 것이 이들 푸성귀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리라.

오가는 길가에 배롱나무가 즐비하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석 달 열흘은 좋이 붉어 있을 것이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날마다 새날처럼 거듭날 것이다. 우거진 수풀 속에 개망초는 하얗게, 애기똥풀은 노랗게 피어 있다. 무성한 살갈퀴는 점점이 자주꽃을 피웠고, 싸리꽃 찔레꽃은 벌써 져버리고 안 보인다.

또 하나, 능소화가 피었었다. 밭으로 들어서는 길목, 높은 나무 위였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띈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름 내내 환했다. 부러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굵은 소나무 우듬지에 창창한 하늘을 뒷배 삼아 휘영청 늘어져 있었다. 희소식을 안고 온 천사의 나팔처럼, 춤추는 무희의 상기된 얼굴처럼 교태로우면서도 단아한 맵시였다. 한낮 땡볕도 아랑곳없는 돌올한 현시나 농익은 황홍색의 도발적인 화안(花顔)이, 지나가는 내 발길을 붙잡고 한참씩이나 쳐다보게 할 만큼 매혹적인 꽃이었다.

세상에 질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꽃이라는 이름일 것이다. 꽃은 미적 대상이지 시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라 최고의 미인 수로부인도 절벽 위의 꽃을 욕심내기는 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내지 않았다. 그 꽃 꺾어 바치오리다 했던 노옹의 헌사도, 탐내는 그 심중을 향한 지극한 옹호였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으리라.

푸른 솔을 휘감고 오른 공중의 능소화도 수로부인의 꽃처럼 아득한 꽃이었다. 손길도 발길도 닿을 수 없는, 눈길만이 허용되는 멀리 있는 꽃이었다. 닿을 수 없어 더 고아하고 서늘한 꽃이었으며, 내 안의 숨은 미의식 혹은 마음의 순도를 높여 주는 심미의 꽃이었다. 높이 켠 등불처럼 위안이 되는, 자꾸만 우러러보게 되는 동경의 꽃이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어울림을 생각해 보는 꽃이기도 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덩굴진 몸으로, 고공 행진하듯이 그토록 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제 몸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꽃줄기도 다행히 그 마음을 알았던지 끝까지 힘을 놓지 않았다. 늘어진 끄트머리쯤을 애써 치켜올려 긴장감을 유지했으며, 줄을 타듯이 낭창낭창 생의 열락을 맛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아 있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 방기하지 않겠다는 생에 대한 의지이자 예의였던 것일까.

능소화는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아직 싱싱한 채였다. 한 차례 소낙비가 왔다 가거나 바람이라도 세게 불고 난 후면 지레 떨군 꽃송이들이 바닥에 수북했다.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낙화의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높은 데서도 낮은 데서도 생글생글 명랑한 꽃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여름의 그 호사는 누릴 수 없다 한다. 푸성귀를 가꾸며 느끼는 오지게 좋은 마음도 그만 내려놓으라 한다. 며칠 전부터 하필 능소화가 있는 길목으로 덤프트럭이 오가고 땅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베어져 있다. 꽃줄기를 밀어 올리던 늠름한 소나무도 예외 없이 고꾸라져 있다. 그렇게 가차 없이 베어질 줄이야. 주말농장도 폐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추와 상추 대신, 새와 나무들 대신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고 한다. 호미질하는 손에 힘이 다 빠진다.

덕분에 아쉽게 추억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가? 쌓이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기 고

기후변화와 섬의 수돗물

조 창 현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장

100년 만의 가뭄, 100년 만의 폭우, 요즘 기상 보도에서 흔히 접하는 말이다. 말 그대로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상이변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에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는 느낌이 전과 다른데, 특히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다가오는 일이다.

복지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섬은 고립되기 쉬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가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완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완도는 본섬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만 나머지 10개 섬들은 자체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섬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에 연계시켜 물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오로지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5월 초의 강우로 제한급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심한 곳은 1일 급수 후 6일 단수가 실시될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다.

이 극심한 가뭄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인근 섬의 지하수나 농업용수를 비상급수 물차에 담아 배로 실어나르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특단의 조치는 당연히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대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완도군에서는 해수담수화 도입, 지하수 저류지 건설, 신규 상수원 건설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저 상수관 건설을 통한 광역상수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책들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난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도 많지 않은 섬 지역에 큰 예산을 꼭 투입해야 하나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섬은 해양생산의 보고이다. 예로 든 완도의 경우, 전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전복과 다시마의 70%는 완도에서 생산되며 생선과 굴, 미역, 김 등도 많이 공급하고 있다. 섬 주위의 갯벌 또한 무궁무진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섬은 관광과 건강한 휴식을 제공해준다. 도시에 밀집되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섬은 건강한 레크리에이션과 심리적인 치유를 줄 수 있다. 완도군도 '해양치유 완도'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생각하며 섬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가뭄 걱정 없고, 물 걱정 없는 행복한 섬이 되어야 찾아오는손님들도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글로컬 대학' 선정, 지역 균형 발전 고려해야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지난 31일 마감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됐다.

'글로컬대학30'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0곳을 뽑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학교당 지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다양한 특혜까지 주어지는 만큼 광주·전남에서만 14개 대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국 108개 대학이 도전에 나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선정방식을 벗어나 신청 대학에 '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향후 10~15년 간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지방대학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방대는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정 여부가 사실상 '살생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이 미진하고 산업여건 마저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우리 지역 신청 대학들엔 이번 경쟁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글로컬 대학에서 요구하는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의 경우 부산, 영남권보다 산업생태계가 열악한 광주·전남에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15개교 내외로 글로컬 대학을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여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명운이 갈리는 상황이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사업의 취지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있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중 수소 빠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뢰하겠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질 뿐 우려가 큰 삼중 수소는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단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진행한다. 현재 한 해 많게는 만 건이 넘는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검사 항목이 세슘과 요오드뿐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 인체 내에 추적되면 유전자 변형 등 세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국민적 불안감이 큰 삼중 수소에 대한 검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산물의 삼중 수소를 측정하는 검사법은 아직 개발 중이며 완료 시기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늑장 대처로 전남에서도 제대로 된 검사는 내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남 양식장과 위판장에 나오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맡고 있는데, 식약처가 삼중 수소 검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혀 왔는데도 여태껏 정부가 방사능 검사법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은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삼중 수소 검사법을 개발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어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전라도 천년사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계기로 발간 예정이던 '전라도 천년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특정 지명을 인용한 사례 등을 지목해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한다.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야마토 왜'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일본서기'의 핵심 내용이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가 e북(jeolladohistory.com)으로 공개한 선사·고대편 내용을 살펴보면 식민사관 논란은 지나친 것 같다. 외려 일본서기나 식민사관을 비판적으로 분석·반박하고 있다. 일본서기 신공기에는 '신공왕후가 신라와 가야를 정벌하고 남만 침미다례를 도륙하여 백제에 하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집필진은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그것을 타 국가에 양도해 준 인심 좋은 국가는 역사상에 유례가 없다. 즉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일축한다.

광주·전남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장고분과 유사한 고분이 14개 가량 있다.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으로 부르지만 전라도 천년사 필자는 식민사관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식 이름인 '장고분'으로 엄격히 구분한다. "당시 영산강 유역권이 야마토 정권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전방후원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장고분과 왜(倭)를 연결하는 것에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장고분이 축조되었던 전라도 지역은 15개 정도의 마지막 마한 소국들이 존재하였고 야마토 왕권이 일본 열도에서 일원적인 지배 체제를 확립한 것은 이와이 전쟁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야마토 세력이 전라도 지역을 영역화하였다는 주장은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식민사관은 극복해야할 일제 잔재다. 한데 연구자들이 일본서기 내용을 인용, 검증, 반박하는 것을 싸잡아 식민사관이라 몰아붙이면 온당치 않다. 열린 시선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전라도 천년사'를 읽어보면 식민사관이라는 주장과 팩트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